

스님을 가장 유혹하는 것 마음밭 일구는 무욕의 삶

‘유혹’

성전 스님 지음
북로드 / 1만원



성전스님(서울 옥천암 주지)이 <빈손>에 이어 두번째로 낸 산중 에세이 <유혹>을 처음 본 이들은 제목을 보고 가우뚱 거린다. 스님 책 제목이 웬 ‘유혹?’ 하지만 성전 스님이 이 책에서 던지는 유혹은 속세의 유혹이 아니다. 유년시절 친구들과 버릇해 정경전 동네마을, 애환서린 어머니의 눈빛, 도반 스님들의 살뜰한 정(情), 단출하고 소박한 삶 등이 바로 스님의 유혹대상이다. 하지만 스님을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것은 비옥한 마음의 밭을 일구며 사는 무욕의 삶이다.

“내게 절집에 사는 날들은 감동이다. 하늘과 바람과 꽃과 영혼의 유혹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에는 ‘결말하나 메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운수 행각하는 수행자의 뒷모습’과 ‘세간을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단출한 생활을 꾸꾸는 모습’ 같은 구절들이 본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자주 등장된다.
또, 이 책을 읽다보면 마치 한쪽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산중 생활의 느낌을 적어서 산과 바다, 꽃, 구름, 달빛, 적요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도반 스님과 주고받은 정과 인생사를 풍부한 글로 전해주기 때문이다. 성전스님이 소년같은 감성으로 내미는 ‘유혹’의 손길에 동참해 보자.

김주일 기자

종교계 원로들의 ‘말씀’에는 힘과 감동이 있다. 그것은 깨침의 푸른 서슬이다. 그래서 원로들의 말씀은 시대를 이끄는 가르침이자 개인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채찍임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서용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스님을 비롯한 해암 前 조계종 종정 스님, 철종 대구 파계사 성전암 스님, 천운 광주 향림사 조실, 대행 한미음선 원장 스님, 각해 진각종 대종사, 탁났한 스님 등 원로 종교지도자 17명의 삶과 가르침을 한데 모은 <산다는게 뭐고하니>.



◇서용 스님 ◇해암 스님 ◇천운 스님 ◇철용 스님
◇대행 스님 ◇각해 대종사 ◇탁났한 스님 ◇김수환 추기경

종교계 원로 17명의 삶·가르침

종교전문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세계일보 권오문 논설위원이 그동안 인터뷰한 많은 명사들의 감동적인 법문을 엄선해 엮은 이 책은 사람이 사는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서두에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각박해질수록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참된 어른이 그리워진다”는 권 위원은 그들의 입을 빌어 우리 머리속에 늘 떠나지 않는 끈질긴 화두 ‘참된 삶, 행복한 삶,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인간의 진실성을 근원적으로 드러낸 본래의 자기자신, 자각한 사람의 참모습을 찾는 ‘참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용 스님은 이 책에서 “자기자신이 참사람인데 환경이나 과학명명의 노예가 되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행 스님도 존철살인 같은 화두를 던진

‘산다는게 뭐고하니’

권오문 지음
미래 M&B / 9천5백원

98년 서울대학교장을 퇴임한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아무도 모르게 철도타고 혼자 여행하고 싶다”는 김수환 추기경을 소개한 글에서는 ‘겸손’이란 단어가 가득하다. 타인에게 물러 자신에게도 꽃꽂이 같은 겸손을 실천하는 수도자로서의 큰 몫 때문이다.
이 책이 흥미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련지의 모범답안 같은 가르침만 담은 것이 아니라 노련한 언론인 특유의 경험과 인생관, 또 독자들이 한 번쯤 품었을 만한 질문을 재치와 인본으로 유쾌해 속시원히 풀어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을 읽는 순간 ‘남들과 다른 어떤 점들이 있었기에 정신적인 지주로 존경받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책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속가시절 사생활·종교 인생관도 함께

쉽게 풀어 쓴 마음의 지침서 깊이 새겨줘야할 경구 가독

‘유식(唯識) 30송’

서광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8천원

<유식(唯識) 30송>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추구하고픈 이들을 위해 쓰여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마음밭을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읽고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경구들이 가득한 ‘마음수행의 지침서’이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은 어려운 문장으로 불자들에게 다소 거리가 있어왔다.
이 책은 현대심리학을 공부한 서광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이 종교를 초월해 일반인들도 한문의 장벽을 넘어 볼 수 있게 재구성한 것이다. 1단계에서는 ‘유식 30송’에 대한 내용을 저자가 연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적 용어로의 역해 차례로 소개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의역된 각각의 계송들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또 3단계에서는 각각의 계송들이 의미하는 내용을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주제들과 연결하고 유식의 관점에서 설명을 달았다. 여기에 유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음수행의 변화과정 5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렸고, 서양철학의 관점 및 유식에서 본 우울증의 차이점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부록에서는 ‘유식 30송’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문과 고대 중국의 현자·진제 법사의 한문 번역과 우리말 번역, 서양 불교학자 로빈슨과 코추루프의 영어 번역과 우리말 번역을 실었다.



김주일 기자

새로운 책



성철 스님의 진솔한 모습
‘죽비한대’
원정 지음
맑은소리 / 8천5백원

성철 스님 곁에서 시차 생활을 했던 속명 차대완, 범명 원정이 말하는 성철 스님에 대한 기록을 엮은 책. 성철 스님에 대한 소설, 전기, 법문집 등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있지만 저자 원정의 글 속에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성철 스님의 굴절없이 진솔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인간 성철’, ‘고된 수행의 길’, ‘인연’ 등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에는 ‘도’에 이르는 길이 멀고 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원정은 “내가 온전히 깨친다면 내 작품은 스승이 내게 내린 화두인 ‘마삼근(麻三斤)’을 제대로 풀어낸 것이 될 것이다.”고 말한다.



반야심경 해설서
‘관(觀) 설 줄 아는 지혜’
구선 스님 지음
연화 / 1만5천원

‘반야심경’을 심지법에 입각해서 재해석해 놓은 해설서이다. 견성체현에 바탕한 심지법으로 ‘반야심경’을 풀이하면 문장의 배열이 바뀌고 절부절 말과 삭제될 말이 있다고 이 책에서 구선 스님은 주장한다. 가령 ‘조견오공공 도일체고액’ 뒷부분에 원래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지만 구선 스님은 이말 대신에 ‘시고 공즉무색’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공을 증득한 사람의 경지를 설명한 것이고, ‘시고 공즉무색’은 공을 증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한 대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유명인사들 음식이야기
‘내 가방속의 샐러드’
녹순금 지음
한국세네텔 / 9천8백원

방송작가가 펴낸 ‘내 가방 속의 샐러드’는 유명인사들의 아침식탁과 음식에 관한 문화 이야기를 연결한 에세이집. 선재스님을 비롯해 조훈현, 임진교, 안숙선, 한비야 등 23명이 공개하는 나만의 요리법. KBS-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에 초대됐던 인물들이 공개했던 자신만의 레시피(Recipe)를 추천 것이다. 특히 그들의 요리 이야기에 덧붙여 음식문화에 대한 단상을 버무렸다. 가령 ‘포고버섯 비빔밥’을 소개하는 사찰요리전문가 선재스님의 쪽지에서는 “사찰음식의 전통적인 양생법은 한 호흡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예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탁났한	명진출판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스님	시공사
3	힐	탁났한	명진출판사
4	소리없는 소리	서암스님	시월
5	묻지 않는 질문	현웅스님	민족사
6	물론 답을 알고 있다	에모투 파서루	나무심는사람
7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효림
8	능엄주해의	천수태	윤주사
9	천하에 내가 사랑하는...	김재경	마당넬은집
10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달라이라마	무우수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이문 전화: (02) 737-0695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각 순(旬)별 6권 증보발간 안내

「효사육임강의록」 증보판 上下권 무료 교환신청접수 안내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값 2,500,000원
기본 현식판과 교환해 보실분은 값 800,000원

육임래정비법 일어판 값 2,720,000원
일반 판매 개시 (5월 15일부터)

본 「육임강의록」 하(下)권 국수편을 「시간별 래정」과 함께

1. 갑자순(갑자순)	10일치 1권	4. 갑오순(갑오순)	10일치 1권
2. 갑술순(갑술순)	10일치 1권	5. 갑진순(갑진순)	10일치 1권
3. 갑신순(갑신순)	10일치 1권	6. 갑인순(갑인순)	10일치 1권

책 6권으로 나누어 얇게 재본하여 우리 활인원역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수해설과 정단별 류신구분 및 조사와 귀신침범여부 등을 포함한 본 강의록 하(下)권을 그대로 옮겼으며, 크기는 종전의 휴대용과 같은 가로 155mm × 세로 105mm이고 권당 두께 20mm입니다.
종전의 휴대용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내용면에서도 본서에 비해 훨씬 떨어지므로 이번 이 책은 가히 육임래정의 완성편을 휴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값은 310,000원이고 단, 본 강의록이나 수정보완본 또는 현식판 등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보내 드리고 있으나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강의 안내
효사숙 제 6기 강의를 시작 합니다.
오는 6월 6일(금요일) 오후 5시부터이고, 오행기초, 기본강의는 3시부터 2시간 사전 교환반에 됩니다.
본 3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분회 회원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5시부터 3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임 고급실기강의를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는 효사육임강의록 증보판 上下권 (값410,000)을 드립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5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단, 활인원역자로서의 그릇 여부를 판단, 선별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 본 강의록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회원 및 부설 전국 육임학당 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증보시킨 것입니다.
■ 기 「강의록」을 구입하신 분은 교환신청하여 새책을 보십시오.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① 권 증보내용(기본 내용 외)

- 사복법 一 · 二
- 부정법미 원인(原因)
- 병인(病因) 병증(病症)
- 육임고시(考試) 문제집
- 육임백법(百法)
- 임상사례 모음

◆ 「사복법 一」의 항목(예)

- ① 저안에 물건이 들었는가 비었는가?
- ② 저안에 든 물체가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
- ③ 저안에 든 물체가 살았다면 무엇인가?
- ④ 저안에 든 물체의 품질은 어떤 것인가?
- ⑤ 저안에 든 물건이 새 것인가 헌 것인가? 뉘한가? 뉘한가?
- ⑥ 저안에 든 물건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 것인가?
- ⑦ 저안에 든 물체의 안색은 어떤 색인가?

육임강의록 ② 권 증보내용(기본 내용 외)

- 국수해설
- 길흉성부단정항목 1쪽으로 독립
- 육임판단순서
- 정단별 류신(類神)구분
- 초사(初辭)
- 귀신침범여부

◆ 「사복법 二」는 사람의 신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 ⑧ 저안에 든 물건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못 먹는 것인가?
- ⑨ 저안에 든 물건의 맛(五味)은 어떤 맛인가?
- ⑩ 저안에 든 물건(돈)은 몇개, 얼마인가?
- ⑪ 돈이 오른쪽에 들었는가 왼쪽에 들었는가?
- ⑫ 저안에 든 물건이 계절이 지난 것인가 현 계절의 것인가? 다가올 계절의 것인가?
- ⑬ 저안에 든 물건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쓸 수 없는 것인가?
- ⑭ 저안에 든 물체의 속 색깔과 겉 색깔은 어떤 색인가?
- ⑮ 저안에 든 물건이 한가지 인가 섞여 있는가?

▶ 주문 전화 02) 993-8680 • 본 휴대용 값 310,000원 • 본 강의록 상·하 값 410,000원 • 육임래정비법CD 2,000,000원 • 육임신수비결 300,000원 • 육임강의 비디오 900,000원
▶ 현금입금 후 전화오망 / 2일 이내 도착 배본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